



Working time and health

제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관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구정완**



제27차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Working time and health'라는 주제로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5월 31일 삿포로 치도세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서울보다 쌀쌀한 날씨로 반팔 차림으로 나선 저를 비롯한 몇분은 추위를 많이 느낄 정도였다. 여행을 통해 함께 신청한 분들과 함께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학회장으로 향하면서 치도세, 삿포로 시내, 홋카이도 구청사, 삿포로 TV 타워, 시계탑 등을 버스에서 즐기면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삿포로에서의 일정이 기대되었다. 학회장소인 게이오 플라자 호텔은 삿포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삿포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개회식

한국 이세훈 지부장



집담회 첫날에는 워크숍 주제인 생활습관에 대해 일본에서 2명, 한국에서 2명, 중국에서 1명이 발표를 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송래영 부장이 “Best practice in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 organization”,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가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factors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and job stress in small workplace worker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집담회 후에는 환영만찬이 개최되었으며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일본측 교수들과 처음 만난 중국 참가자들이 한국 각지에서 온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멋진 일본 음식과 사케 그리고 주최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환영만찬이 끝나고 일한중 대표 및 간사는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지고, 일한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발전시키고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으며, 학문적이고 연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례, 직업환경의학 수련,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면서 젊은 층의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집담회는 일본 65명, 한국 46명, 중국 12명 총 123명이 등록을 하였다.

중국_ Ma Jun 교수

일본_ Toru Itani 교수

Workshop 발표 송래영 부장(전북센터)



Opening ceremony

Workshop

두 번째 날에는 삿포로대학교 Mitsuru Mori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일본 보건노동복지부의 산업안전보건과 정책관 Seiji Tanaka의 환영사와 각국 대표로 일본 Toru Itani 교수, 한국 이세훈 교수, 중국 Ma Jun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기조 연설에서는 일본 Mitsuru Mori 교수의 “일본 노동자들의 과로와 심한 경제적 격차”, 한국은 순천향대학교 우극현 교수의 “2012년 불화수소 누출 사고와 환경보건센터”, 중국은 Ma Jun 교수의 “중국의 직업병의 현재 실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에 개최된 steering committee meeting에서는 2018년 한국 개최예정인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의 개최 시기를 6월 14일(목)~16일(토)로 확정을 하였으며, ACOH(아시아산업보건학회)가 2020년 5월 27일(수)~30일(토)에 한국에서 주최할 예정이어서 2020년에 한국 ACOH 일정 중에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2020년부터는 학술집담회 개최 순서를 한일중으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특이할 점은 2020년에 개최될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제30차를 맞게 되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30주년 소책자를 만들자고 합의하였고 가을에 있을 간사 모임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이러진 자유연제발표 I, II에서는 총 46개(한국 16개)의 포스터를 각 연제당 1분 30초 동안 슬



Workshop 발표 구정완 교수



steering committee meeting

steering committee meeting

라이드로 소개하는 발표시간과 이어진 포스터 세션에서는 포스터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연제발표 III, IV에서는 총 19개(한국 4개, 부산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인제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구두발표가 2개의 방에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날 공식만찬에서는 일본 생선회, 초밥, 양고기, 소고기, 랍스터 등 귀한 음식과 술을 맘껏 즐겼으며, 특별히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일본 전통 북공연이 한층 흥을 돋구어 주었다. 북공연에 이어 외국 참가자들이 실제로 북을 치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이동준 부장은 원래 북을 많이 친 경험이 있어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으며, 서남대학교 김동일 교수는 무대에 나서자마자 벡타이를 풀어 머리에 둘러매는 등 특유의 끼를 맘껏 자랑했다. 공식만찬 마지막 즈음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상희 대리가 발표했던 ‘북한 개성공단에서의 직업안전보건 상담 서비스’가 최우수 학술포스터상으로 선정되어 축하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에는 ‘Working time and health’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일본 측에서 3명, 중국 측에서 1명, 한국 측에서 2명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인제대학교 서춘희 교수가 ‘The impact of long working hours on psychosocial stress response among white-collar workers’와

한양대학교 김인아 교수가 'Long working hours and other considering risk factors for compensation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in South Korea: a descriptive analysis and judicial precedent review'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었으며, 질의 응답시간에 다양한 토의가 있었으며 세션이 끝난 후에도 일본 산업의과대학 교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폐회식에서는 삿포로대학교 Mitsuru Mori 교수가 마무리인사를 해주었으며, 한국 측 간사인 가톨릭대학교 구경완 교수가 2018년 6월 14일(목)~16일(토)에 한국 송도에 서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소개하면서 내년에 더 발전적이고 활기찬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끝을 맺었다. 🍷

Free Communication Session

김준호 대리(경기센터)



최선미 대리(충북센터)



김효진 대리(본부)



폐회식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최상희 대리(경기북부)



황인호 차장(대구센터)

